

전남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별법' 마련 앞장

집적화지구 지원·임차농 보호 반영 등 역량 집중 이달 중 법안 마무리 후 정부·국회 적극 건의 계획

전남도가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 유치와 전남 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 지

역 발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지만, 이

는 자경농에 한해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해 본격 확대에는 미흡하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ha 이하 소규모이며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은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80.9%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와 이에 대한 지원 내용,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집적화지구 지정은 첨단산업 유치, 지역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집적화지구 입지를 발굴·지정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집적화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 외 법인 등도 23년 이

상 발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구상하고 있다.

소유자, 경작자, 지역 주민, 발전 사업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신설, 계통확보 우선 지원, 국가간적지 활용 지원 등 각종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초 영농형 태양광 특

별법안을 마련해 지금까지 22개 시·군, 대학, 관련 협회·기관 및 국회의원 등의 자문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 특별법을 마무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 첨단산업 지구에 대규모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라며 "내년 상반기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9일 산사태 위험지역인 영암군 금정면의 한 마을을 방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마을회관에 대피중인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중점 점검

금지사, 영암 모정마을 찾아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등 살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영암군 금정면 안노2구(모정마을)를 찾아 산사태 주민 대피시설을 살피고, 선제적 대피조치가 이뤄질 때 지급되는 '재난안심 꾸러미'를 소개하며 생명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손남일·신승철 전남도의원, 영암군 부군수, 금정면장,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강우로 지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과 주민 대피 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계곡부의 추가 침식 여부, 배수로 정비, 대피소 관

리상태, 주민 대피 체계 등도 살폈다.

모정마을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난 5월10일 경찰·소방·면사무소·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유관기관 협조 체계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올해 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곡부 정비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앞두고 있어 향후 11월 사업이 완료되면 항구적 산사태 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도입된 '재난안심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남도의 차별화된 재난대비 시책이다. 도민 의견을 반영, 치약·칫

솔세트, 물티슈, 즉석밥, 컵라면, 다과류 등 15종으로 구성됐으며 총 1만 세트를 제작·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16일부터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린 순천, 진도 등 9개 시·군에 '재난안심 꾸러미' 200세트를 지원해 주민 대피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12개소에 설치해 대비하고 있지만, 산사태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이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니 주민 대피 요청 시 마을회관 등 지정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市, 교육·놀이 결합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순항

영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2026년말 준공 목표

광주시가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아시아 캐릭터랜드'의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주관하는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와 배치 등의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에 들어간 이 사업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은 창작된 지역콘텐츠와 아시아 각국 캐릭터를 활용, 유아와 어린이들이 놀이

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북구 오룡동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지에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85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캐릭터 빌리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소규모 공연장, 공작소, 어린이 행사룸, 플레이그라운드, 캐릭터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22년 1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약을 맺고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EBS의 유명 방송 콘텐츠와 광주에서 육성하고 있는 캐

릭터, 아시아 각국의 캐릭터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립광주과학관, 녹색에너지 체험관, 어린이교통공원, 쌍암근린공원 등 주변의 다양한 체험 기반시설과 연계한 광주의 대표적 유소년 대상 문화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시아 캐릭터 산업의 교류의 장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시아의 유명 캐릭터를 활용해 놀이와 학습이 가능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공간을 만들어 유아, 어린이, 부모를 위한 풀뿌리 광주로 한걸음 나아가겠다"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성강기자

전남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7곳 '우수'

여가부, 평가 선정...목포·광양·고흥·완도·화순·해남·장성

전남도는 21일 "여성가족부의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목포, 광양, 고흥, 완도, 화순, 해남, 장성 등 7개 시·군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7개소다. 도

시, 도농, 농촌지역 3개 그룹별로 구분해 A·B·C등급을 부여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67개소는 우수등급인 A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 전남도는 전체 개소수의 1.05%가 우수등급으로 평가 받아 시도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시형 목포, 도농형 광양, 농촌형 고흥·완도·화순·해남·장성이 우수등급으로 선정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입증했다.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7개 시·군 중 광양, 고흥, 완도는 전국 상위 15%에 포함돼 오는 12월 여성가

족부에서 개최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소통의 날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을 모범사례로 삼고, 도시와 농촌지역에 적합한 운영사례를 분석해 향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전 시·군에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사는 많은 가정 이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멋진 바닷가 해안도로에 접한 소액투자매물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산261외4필지 13,000㎡
평당3만원 총가 1억2,800

=====
곡성 국도변 계획관리등 과수원 70,000㎡
체리,단감나무농장,전시,수도,관리사있음
광주에서20분대 전원마을,공장등 최적
급매14억7,000(조정가)
=====
월세많은(110%)돈덩이 부동산
동신대옆 대지3,467㎡ 원룸건물3동,관리1동
(1층점포2칸,2층아파트형 주택150㎡ 주인거주)
2023.6월울수리 급처분 13억5,000
(현재 보3,000 월1,460만원 받고있음)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인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